

대작 '승리호'마저 극장 아닌 넷플릭스로

코로나19로 극장관객 70%나 줄어 240억 제작비 회수 위한 교육지책 넷플릭스 "190개국 31개 언어 공개" 대작에 기대 걸었던 극장이 실망감

올해 겨울시즌 극장가의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온 영화 '승리호'가 결국 넷플릭스로 향한다. 200억원대 제작 규모의 한국 블록버스터영화 첫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직행'이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제작비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제작진의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향후 영화계 안팎에 상당한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개봉일을 여러 차례 미룬 영화 '승리호'가 결국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서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확산, 극장만으로는..."

넷플릭스는 "영화 '승리호'를 190여 개국에서 동시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밝힌다. '승리호'의 넷플릭스행이 이미 영화계 내부에는 기정사실처럼 알려진 상황이라서 제작진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개 방침을 먼저 알린 것으로 보인다. '승리호'는 2019년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240억원의 제작비로 한국

영화 첫 우주 SF영화를 표방해왔다. 송중기·김태리·유해진 등 톱스타급 배우들을 내세웠다. 여기에 스크린을 대규모 확보해 흥행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텐트폴' 영화로도 인식돼 왔다. 하지만 제작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여름~추석~12월로 개봉을 미룬 뒤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를 택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 관객이 무려 70%나 줄어든

상황에서 극장 상영 중심의 기존 방식으로는 제작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배급사 메리크 리스마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결정의 우선 배경으로 밝혔다. 이어 "시리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확장, 기존 콘텐츠 유통 환경과 디지털의 허물어지는 경계, 글로벌 시장의 높은 성공 가능성 기반 조성"도 이유로 덧붙였다.

● "넷플릭스, 비용 줄이며 콘텐츠 장악?"

극장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승리호'가 거대 규모와 톱스타들의 등장 등에 힘입어 극장가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22일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이후 닷새째 300명대에 달하면서 관객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승리호' 등 대작에 기대를 걸었지만 12월 상황을 쉽게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승리호'는 물론 4월 '사냥의 시간', 12월 '팔', 내년 1월 '차인표' 등 한국영화의 잇단 넷플릭스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적지 않은 다른 제작진도 넷플릭스 등 OTT를 영화의 공개 무대로 삼기 위해 검토 중이다. 제작비 회수는 물론 제작 수수료 등 '+a'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이 넘쳐나면서 OTT들이 '+a'를 점점 낮추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영화 관계자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오로지 제작비를 돌려받기 위해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례가 이어질 것이다"면서 "콘텐츠의 OTT 종속 심화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비혼모 출산' 사유리가 우리사회에 던진 물음

유튜브 임신과정 공개 100만 클릭 출산 자기결정권 존중 분위기 확산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모로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임신 과정을 공개하면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고 고향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4일 아들을 낳았다.



사유리

사유리는 20일 유튜브 채널 '사유리TV'를 통해 1년의 임신 과정을 공개했다. 영상은 22일 오후 현재 11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이용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사유리, 엄마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에 붙인 일련번호로 영상을 계속 올릴 것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3월19일 찍은 첫 영상에서 "오늘 임신한 걸 알게 되면 오늘부터 애 엄마가 되는 거다. 나는 강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눈치 안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하기도 무섭고, 안 하는 것도 무섭다"며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임신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검사를 받는 장면 등도 담았다.

누리꾼은 "무거운 선택을 지지한다"며 댓글로 목소리를 냈다. 또 "아빠가 없는 아기를 낳는 거다. 이기적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는 사유리의 말에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며 응원하고 있다.

이에 임신·출산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실제로 올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출산은 하고 싶다'는 비혼 출산에 국민의 30%가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22일 많은 누리꾼도 사유리의 영상 댓글에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적 개정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체외수정 기술을 못하도록 한 지침에 대한 입장을 24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캡틴' '포커스', 엠넷 투표조작 오명 벗길까

'캡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디션 포크 소재 내세운 '포커스'도 신선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이후 묵묵히 첫 발을 내딛던 프로그램들이 있다. 19일과 20일 잇따라 첫 방송한 '캡틴'과 '포커스'이다. 각각 10대와 포크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엠넷에 대한 시청자 불신과는 별개로 개성적인 무대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캡틴'은 가수의 꿈을 키우는 10대 참가자들이 부모와 함께 오디션에 참가하는 콘셉트를 내세웠다. 자녀의 도전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모

습을 통해 감동 요소를 추가했다. 경쟁보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에 더욱 초점을 맞춘 덕분에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경쟁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켰다.

가수 이승철, 제시, 소유, 몬스타엑스 서누 등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코칭을 더해 차별화를 꾀했다. 이승철은 "2009년부터 6년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리즈와 다른 지점"이라며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고민도 담아내는 '카운슬링 프로그램'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포커스'는 포크와 어쿠스틱 장르에 집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기타와 목



각각 19일과 20일 첫 방송한 오디션 프로그램 '캡틴' (위)과 '포커스'가 '오디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리만으로 승부하는 참가자들의 무대를 두고 '듣는 즐거움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하피, 밴드 호아, 듀오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등 이미 여러 음반을 발표해 실력을 인정받은 포크

가수들이 대거 등장한 덕분이기도 하다. 유승우 등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가수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참가자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1회 1.6%(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모았다. 시청자의 주목을 받기 힘든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방영하는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두 프로그램은 가요계의 다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관건은 역시 공정성이라는 시선이 많다.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엠넷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캡틴'의 권연찬 책임프로듀서와 '포커스'의 오광석 PD는 "프로그램과 무관한 외부 인력이 투표 과정을 검수하는 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하게 제작하려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종교개혁의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성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캠퍼스 010-5647-5428 / 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병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석서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임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 초안고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규 010-8029-0059 / 임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서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재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욱 010-6258-3510 / 오영숙 010-9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우만 홍원표 010-6717-171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석 010-4707-2659 ● 판문점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캠퍼스 010-6806-1931 / 노수림 010-5153-5983 ● 평강 교명실 010-5463-6952 ● 동광 중동주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미니나 010-8763-8742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나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인류의 구세주
 21세기제2의 석유
 K-biz, K-pay, K-platform
 성경기부경제학
 '자본공유앱APP'
 선착순 자동일자리부 품앗이계

하이우분투(주)
1644-6733